

뉴스 라운드업

- 미 장기금리 2007 년 이후 최고치 경신, 독일·일본 국채금리도 수년래 최고권 진입
-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·미-이란 협상 중단, WTI 장중 2 주래 고점 찍은 뒤 -0.52% 반락한 84.06 달러 마감
- 나스닥 이틀 연속 약세로 2 주래 최저치, 반도체지수 5%대 급락에 VIX 15.85 로 반등
- 금리 급등 여파에 금 -1.91%·구리 -1.87% 동반 하락, 안전자산도 예외 없이 약세

중동 정세 경색과 글로벌 금리 급등이 겹치며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다

간밤 미국 국채금리가 2007 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글로벌 채권시장이 다시 흔들렸다. 30 년물 국채금리는 2007 년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고, 독일 10 년물(3.260%, +2.6bp)은 2011 년 이후, 일본 10 년물(2.952%, +2.9bp)은 30 년래 최고 수준까지 함께 뛰었다. 반면 미국 10 년물(4.708%, -1.8bp)과 2 년물(4.177%, -0.5bp)은 오히려 소폭 낮아져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는 전형적인 커브 스티프닝이 재현됐는데, 이는 최근 하우스에서 주시해온 '글로벌 동조 커브 스티프닝' 테마의 강화 확률이 0.92 로 이번 국면 최고치를 재차 경신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. 부진한 미국 주택지표(7 월 잠정주택판매 -2.3%, 컨센서스 +0.3% 큰 폭 하회)와 수출물가(-1.3%, 컨센서스 +0.2% 하회)에도 장기금리가 오히려 급등했다는 점은, 이번 움직임이 경기보다 재정·인플레이션 우려와 중동 지정학 리스크에 더 크게 기인함을 시사한다.

중동 정세는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.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어떤 협상도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고,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이 이란 항구 봉쇄 해제·석유 제재 완화 등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이란 측이 재확인했다. 아랍에미리트(UAE)는 이란발 탄도미사일 2 발을 포착했다고 밝히는 등 긴장이 확산되는 모습도 나타났다. 이 여파로 WTI 는 장중 2 주래 최고치를 찍었으나 정작 종가는 전일 대비 -0.52% 낮은 배럴당 84.06 달러로 마감해 상승분을 일부 되돌렸다. 통상 지정학 리스크 국면에서 매수세가 몰리는 금은 오히려 -1.91% 하락한 온스당 4,332.83 달러로 밀렸는데, 안전자산 수요보다 금리 급등에 따른 보유 기회비용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. 구리도 -1.87% 동반 하락했다. 뉴욕 증시는 금리 부담과 중동 불확실성이 겹치며 나스닥이 -1.33% 밀려 2 주래 최저치로 내려앉았고,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5%대 급락하며 낙폭을 키웠다. S&P500(-0.69%)과 유럽 STOXX600(-0.69%)도 동반 약세를 보였고, VIX 는 +4.41% 오른 15.85 를 기록하며 변동성 경계감이 되살아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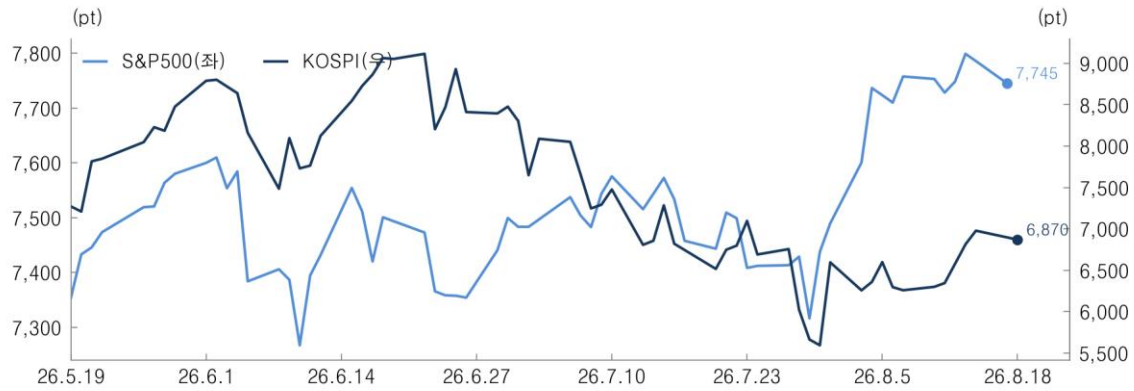
이번 위험자산 조정은 아시아 시장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어둘 부분이다. 전일 오후(한국시간 기준) 마감한 닛케이(-2.54%)와 코스피(-1.55%)의 낙폭은 이번 간밤 금리 급등·중동 약재가 아니라 그 이전 장중 흐름을 반영한 결과이며, 오늘 개장에서 밤사이 미국·유럽발 리스크오프가 새롭게 반영될지가 관건이다. 한편 캐나다-미국 관세 협상도 주목할 대목이다 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자정(현지시간) 발효 예정인 대캐나다 50% 관세(수입 규모 약 200 억달러)를 앞두고 자동차 관세를 15%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, 백악관과 미국무역대표부(USTR)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. 시장은 수요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의사록 공개를 다음 변수로 주시하고 있으며, 선물시장은 9 월 회의에서 동결(61%) 우세 속 인상(39%)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어 인하 기대보다는 정책금리 유지·추가 인상 경계가 시장 프라이싱의 중심에 있다.

글로벌 주요 자산

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· 직전 확정 종가 대비 · TradingVie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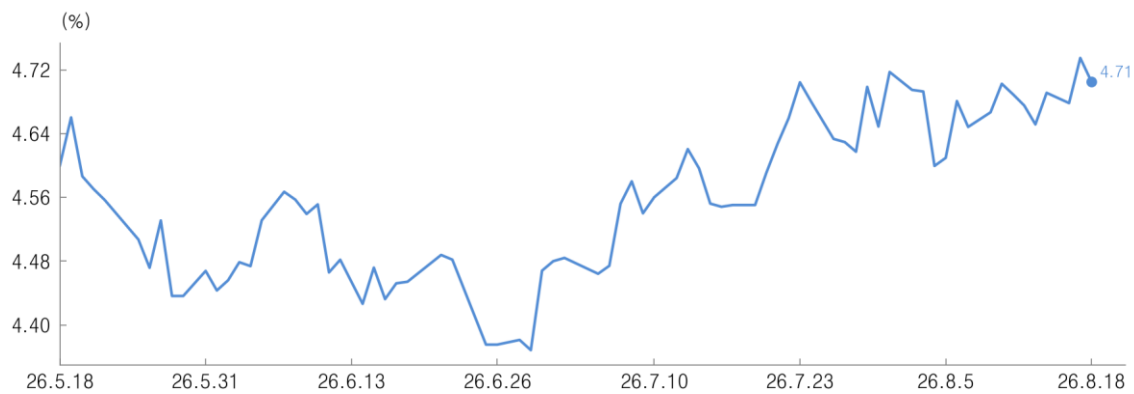
구분	자산	가격	전일 대비	기준
주식	S&P 500	7,691.76	-0.69%	8/18 종가
	나스닥	26,289.70	-1.33%	8/18 종가
	STOXX 600	651.91	-0.69%	8/18 종가
	닛케이 225	67,460.51	-2.54%	8/18 종가
	CSI 300	4,725.81	-0.32%	8/18 종가
	KOSPI	6,869.83	-1.55%	8/18 종가
	항생	25,471.15	+0.07%	8/18 종가
환율	달러인덱스(DXY)	99.64	+0.06%	8/18 종가
	달러/엔	159.61	+0.01%	8/19 종가
	유로/달러	1.16	+0.01%	8/19 종가
	달러/원	1,412.28	-0.18%	8/18 종가
	달러/위안	6.74	+0.04%	8/18 종가
금리	미국 10 년	4.708%	-1.8bp	8/18 종가
	미국 2 년	4.177%	-0.5bp	8/18 종가
	일본 10 년	2.952%	+2.9bp	8/18 종가
	독일 10 년	3.260%	+2.6bp	8/18 종가
	한국 10 년	4.375%	+7.5bp	8/18 종가
크레딧	미국 HY 스프레드	270bp	+3.0bp	8/17 종가
원자재	WTI	84.06	-0.52%	8/18 종가
	금	4,332.83	-1.91%	8/18 종가
	구리	6.49	-1.87%	8/18 종가
변동성	VIX	15.85	+4.41%	8/18 종가

S&P500 vs KOSPI — 최근 3 개월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— 최근 3 개월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

권역	요약
글로벌 · 교차자산 뉴스 17 건 HIGH	•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속 이란 휴전 협상 결렬로 중동 지정학 리스크 재점화 ↳ 어제 저녁 트럼프 대통령, 이란과의 협상 진행 부인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선언 ↳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이 미확인 투사체에 피격되어 선원 인명피해 보고(영국해상무역기구) ↳ 브렌트유 배럴당 약 \$91 로 3 거래일 연속 상승, 중동 위험 프리미엄 반영 • 미국 30 년물 국채 수익률 2007 년 이후 최고 5.3371% 돌파, 글로벌 채권 약세 본격화 ↳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글로벌 인플레이 우려로 30 년물 사이클 최고(5.3371%) 기록, 금융위기 이후 19 년 만의 수준 ↳ 금리 민감 기술주 동반 하락(나스닥 -1.06%), 주식과 채권 동시 약세 신호 ↳ 연준 금리 인상 시장 전망: 9 월 인상 확률 35%, 12 월까지 누적 68% • 미국 7 월 주거 지표 혼조 — 허가 예상 상회, 착공 예상 큰폭 하회 ↳ 건설허가 144.3 만호(예상 137.0 만호) 상회 vs 주택착공 123.9 만호(예상 135.0 만호) 하회로 엇갈린 신호 ↳ 착공 전월 대비 -12.4% 급락(6 월 수정 242.7 만호 → 7 월 123.9 만호), 건설 모멘텀 약화 시사 • 달러지수 보합, 엔화 약세 권역 160 엔/미국달러 근처 유지 ↳ 유로 2 개월 고점 근처 1.161 미국달러 거래, 유로화 강세 지속 ↳ 미국 경제지표 부진(주거·고용 약화)으로 연준 금리 인상 전망 보수화 → 달러 약세 기조 ↳ USD/JPY 160 근처 유지, 8 월 일본은행 금리 결정(31 일 예정) 주목 • 캐나다, 미국 관세 회피 협상 진행 중 — 달러 약세, 주택시장 동반 약화 ↳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, 트럼프 대통령과 긴급 협상 진행(관세 적용 기한 임박) ↳ 캐나다 달러 1.39 캐나다달러/미국달러 = 약 71.94 센트(전일 -0.2%, 2 개월 고점 1.3842 이후 반락) ↳ 캐나다 7 월 주택착공 229.1 천호(6 월 240.8 천호, 예상 247.5 천호), 예상 하회로 건설 약세 지속 • 미국, 국제형사법원 회장 토모코 아카네 제재 — 이란 강경책 심화 ↳ 토모코 아카네(일본 판사·국제형사법원(ICC) 회장) 제재 대상 지정(어제 미국 재무부 발표) ↳ ICC 는 국제사회가 2002 년 설립한 전쟁범죄·대량학살·반인도범죄 기소 기구(미국은 미가입 국가) ↳ 트럼프 행정부의 ICC 적대화 정책 지속(작년에 이어 고위급 관계자 추가 제재), 지정학 긴장 심화와 병행
미국 뉴스 44 건 HIGH	• 30 년물 채권 수익률 2007 년 이후 최고 돌파, 전 지역 기준금리 상승 ↳ 미국 30 년물 수익률 5% 돌파로 약 19 년 만에 최고치, 10 년물 4.744%(+2bp) ↳ 일본 10 년물 약 3%(30 년래 최고), 독일·프랑스도 연중 최고 수준 ↳ 미국 정부 부채 증가, 이란 분쟁 원유 공급 차질 우려, 에너지 인플레이션 압력 • 나스닥 -1.3%, 반도체지수 -3~5% — 고금리가 성장주 밸류에이션 압박 ↳ S&P 500 -0.62%, 다우 -0.22~0.25%, 2 주일 최저치 기록

권역	요약
	↳ 매그니피센트 세븐 광범위 약세, 반도체 업계 특히 부진 ↳ 금리 상승으로 성장주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평가 하락 • 이란-미국 회담 교착, 호르무즈 해협 폐쇄 우려 — 유가 2 주일 최고 ↳ 트럼프 '회담 없음·해협 정상 운영' 주장 vs 이란 고위관계자 '공세 전환' 선언으로 입장 대립 ↳ 유가(브렌트유) \$91 기록,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 → 인플레이 기대 상승 → 채권 기준금리 상승 연동 • 캐나다-미국 관세 협상 임박, 수요일 자정 \$20 억 규모 50% 관세 적용 예정 ↳ 카니 캐나다 총리, 트럼프와 월요일 회담, 자동차 관세는 15%로 인하 협상 중 ↳ 캐나다 자동차업계 '15% 관세도 감당 불가' 입장, 협상 여건 어려움 ↳ USMCA 전체 재협상도 위험에 처함 • 7 월 주택판매 -2.3%, 착공은 2022 년 이후 최저 — 주택시장 압박 심화 ↳ 보류 중인 주택판매 예상(+0.3%)에서 -2.3%로 반전, 단독주택 착공도 3 년 8 개월 만에 최저 ↳ 수출가격도 예상(+0.2%)에서 -1.3% 기록 ↳ 고금리와 경제 불확실성이 수요 위축을 주도
유럽 뉴스 14 건 HIGH	• 유로존 장기채 수익률 15 년 최고·STOXX 600 2 주일 최저로 진입, 이란 전쟁 종료 기대 붕괴·인플레이 우려 확산 ↳ STOXX 600 -0.69%로 651.90(2 주일 최저) 진입, FTSE 100 은 에너지주 강세로 +0.1% 방어 ↳ 독일 10 년물 수익률 15 년 최고(2011 년 5 월 이후) 경신, 프랑스도 상승하며 독-불 스프레드 2025 년 10 월 이후 최대 확대 ↳ 이란 전쟁 종료 기대 붕괴·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 재부상 우려 확산, 트럼프의 협상 부인으로 지정학 불확실성 심화 → 유럽중앙은행(ECB) 9 월 0.25%p 인상 가능성 시장에 거의 100% 반영 • 파운드화, 월요일 3 개월 최고(1.3571)에서 수요일 CPI 발표를 앞두고 1.3537 로 약세 전환 ↳ 미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연준 정책 경로가 비둘기적으로 조정되며 파운드 초반 상승 주도, 수요일 영국 소비자물가(CPI) 상향 예상(2.9%, 6 월 2.6%)이 약세 유도 ↳ 약한 인플레이 결과 시 영국중앙은행(BoE) 매파 위원 입지 약화로 9 월 인상 확률 1/4 수준 평가, 로이터 설문에서는 BoE 가 연말까지 금리 동결(3.75%)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 다수 • EUR/USD, 1.16 돌파 재실패·리스크 오프로 1.1575 후퇴 — 트럼프 협상 부인 후 안전자산 선호 ↳ 뉴욕 개장 초반 달러 약세로 1.1589 까지 상승 후, 트럼프 협상 부인 발언 직후 리스크 오프로 -0.05% 약세(1.1575 마감) ↳ 월요일 약세 전환 신호 이후 1.16 수준 돌파 재실패 → 기술적 약세 확인, 200 일선(1.1630) 저항 형성, 최근 유로 반등은 연준 매파 베팅 축소 때문으로 지정학 리스크·가스 가격 상승이 여전히 역풍 • 영국 민간부문 임금증가율 2020 년 말 이후 최저로 악화, 광산주 부진으로 FTSE 100 7 거래일 연속 상승 지속 ↳ FTSE 100 7 거래일 연속 상승 중(10,711.29), 금속광산주 후퇴 지속하며 FTSE 250 -0.4~0.6%

권역	요약
	↳ 민간부문 임금 상승률이 2020 년 말 이후 최저 수준 → 영국 노동시장 냉각 신호 • 스웨덴 중앙은행(Riksbank) 목요일 금리 결정 임박, 17/18 경제학자 동결 예상(정책금리 1.75%) ↳ 정책금리 1.75% 동결이 대체로 예상되는 가운데, 10/17 경제학자는 9 월~12 월도 동결 전망 ↳ 6 월 Riksbank 총재가 2027 년 이전 인상 가능성을 50-50 수준으로 언급 → 매파적 어조 시 스웨덴크로나(SEK) 강화 가능 • 영국 Burnham 총리, 러시아의 드론 공급 경고에 "100% 지원" 천명하며 우크라이나 원조 강화 의지 ↳ 타임스 토요일 보도(영국산 드론 러시아 장거리 타격 첫 사용) 이후 러시아가 '결과 초래할 것' 경고 ↳ Burnham 총리가 러시아 경고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100% 지원 선언 → 지정학 긴장 심화 • EU 기후변화 대응에 연 €7,000 억 필요하나 회원국 적응 계획은 €690 억만 — 기후 투자 심각한 과소 상태 ↳ EU 자체 평가로 기후변화 대응 비용 연 €7,000 억 필요하나, 회원국 계획은 10% 수준인 €690 억만 → 적응 투자 크게 부족 ↳ 열로 인한 사망 25,000 명+, 템스 배리어(런던 중심가 홍수방어) 교체 필요 가능성 제기
EM 기타 뉴스 17 건 HIGH	• 이란, UAE 공격 탄도미사일 2 발 발사 — 평화협상 붕괴 속 호르무즈 해협 폐쇄 연장 ↳ 오늘 새벽 UAE 국방부, 이란발 탄도미사일 2 발 감지(1 발은 영해 내, 1 발은 외부), 위협 대응 태세 강조, 이란의 즉각 대응 없음 ↳ 어제 이란 협상가 팔리바프 의원,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6 월 17 일 체결 MOU 조건 충족까지(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 해제·석유 제재 철폐·동결자산 방출·전면 군사작전 및 위협 중단) 지속할 것 명시 ↳ 미국의 임시 휴전협정 연장 거부로 평화협상 기회 축소·이란이 '전면 공세' 군사 태세로 전환 선언 • 사우디, UAE 송금에 고위험국 수준 자금세탁방지(AML) 감시 적용 — 양국 금융 갈등 신호 ↳ 사우디 은행들, UAE 송금에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규제 감시 적용, 사우디중앙은행이 주요 은행들에 지침 전달 ↳ 일부 송금이 지연·반환되는 사례 발생, 업계 관계자는 '미묘한 메시지'로 해석하나 중앙은행은 '특정 국가 직접 규제 제한은 없다'고 명시 • 인도네시아: 정부채 입찰 불발·FTSE Russell 지수 추가 12 월까지 연기 ↳ 9 월·11 월·2027 년 8 월 만기 정부 단기국채(T-bills) 입찰에서 낙찰 없음 ↳ FTSE Russell, 인도네시아 주식 지수 편입 및 분류 변경을 12 월까지 연기, 당국의 주주공시 강화(1% 이상 의무)·고집중 주주 리스트 공시·투자자분류 개선을 검토했으나 여전히 개선 필요로 판단 • 이집트 중앙은행, 기준금리 19% 유지 예상 — 4 연속 정책금리 동결, 인플레 하향 신호 대기 ↳ 20 일(목) 금융통화위원회 정책금리 발표 예정, 야간예금금리 19%·야간대출금리 20% 유지 전망 일치(로이터 설문 경제학자 13 명) ↳ 인플레 재차 하향 추세 확인 후 인하 재개 예상 • 우크라이나 전직 국방장관, 전시 선거 요구 발표 — 2022 년 이후 최대 정치 도전 ↳ 미하일로 페도로프 전 국방장관, 유튜브 영상으로 전시 선거 필요성 발표, 정부의 정치 위기 및

권역	요약
	통치 한계 지적 ↳ 러시아 전면 침략(2022 년) 이후 주요 정치인의 첫 공식 도전, 우크라이나 법은 전시 중 선거 금지 • 볼리비아 의회, 경제부장관 강제 사임 — 대통령 파스의 경제개혁 추진력 약화 ↳ 호세 가브리엘 에스피노사 경제부장관, 국회 불출석으로 의회 탄핵 의결(다수당 동의) ↳ 장관은 연료 부족 대응차 산타 크루스 방문 후 브라질 출국 예정이었음, 정부는 외화 부족·연료 공급 문제 직면 • 푸틴, 미얀마 대통령 접견 — 에너지 협력 논의, 양국 유대 심화 ↳ 미얀마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, 4 월 취임 후 인접국 아닌 첫 방문국으로 러시아 선택, 푸틴이 미얀마를 러시아의 친구로 명시 ↳ 에너지·방위 등 광범위 협력 분야 논의, 서방 압력 속 러-미얀마 동맹 심화 신호 • 남아공 랜드 16.23 대달러 보합 — 중동 긴장·금값 하락이 약세 압력 ↳ 중동 긴장 고조와 금값 하락으로 위험자산 약세, 랜드는 전일 보합, 달러는 통화바스켓 대비 안정적 ↳ 19 일 남아공 CPI 발표 대기 중 • 우루과이 중앙은행 기준금리 5.75% 유지 • 러시아중앙은행, 1 주 레포 경매에서 4.5 조 루블 판매
중국 뉴스 1 건	• 중국 신규 은행대출 연 -19% 감소, 중앙은행의 선제적 완화 신호 부재 ↳ 1~7 월 누적 신규 은행대출 10.4 조 위안(전년동기 대비 -19%) ↳ 역사적으로는 이 정도의 신용 축소가 금리 인하 신호였으나, 중국인민은행(PBoC)이 '질적 정상화(양에서 질로의 전환)' 정책으로 현 기조 유지 강조 ↳ 시장에서는 신용 공급 감소보다 소비·투자 부진이 더 시급한 문제이며, 중앙은행의 현 기조로는 구조적 악화 해결이 미흡하다고 지적
일본 뉴스 2 건	• 일본 엔화 약세 개입 효과 8 일 만에 소진, 캐리 트레이드 수요 급속 회복 ↳ 멕시코 페소 캐리 트레이드(엔 저금리로 차입해 페소 고금리에 투자하는 거래) 수요가 개입 직후 8 일 만에 회복, MXN/JPY 가 개입 낙폭의 대부분을 되돌림 ↳ USD/JPY 도 어제 저녁 159.60 을 상회하며 주요 저항선 161.39 진입 임박, 일본 당국의 추가 개입 가능성 대두 ↳ 9 월 일본은행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예정(현행보다 더 적극적 수준 검토)이 구조적 엔화 지지 수단
인도 뉴스 5 건	• 인도 민간은행, RBI 달러 스왑 시설 마감 전 채권 발행 가속 ↳ ICICI·Axis 등 대형 은행의 10 억달러 이상 달러채 조달 완료, Kotak Mahindra·YES·IDFC First·Federal Bank 등 4 개 행의 18.5 억달러 추가 발행 계획(5 년물 이내) ↳ RBI 의 무비용(zero-cost) 외환 스왑 시설 조기 종료로 은행권의 8 월 말 기한 전 달러 편당 가속화 ↳ 외환 입금 제도 종료에 따른 단기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우려, 3 개월물 CD(예금증서) 스프레드의 110 기본포인트에서 130 기본포인트로 확대 • 중동 평화협상 교착으로 유가 급등, 인도 주가·채권 동반 하락 ↳ Nifty 50 -0.55%, BSE Sensex -0.63%, 루피 -0.08%(95.6750) ↳ 이란의 미국과 협상 연장 불가 통보, 임시 휴전 종료에 따른 유가 급등

권역	요약
	↳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으로 채권 매도 압력 확대, 중앙은행의 루피 개입으로 낙폭 제한
브라질 뉴스 2 건	• 라틴아메리카 자산 약세 심화 — 미국 장기금리 상승·인플레 우려 확산 ↳ MSCI 라틴아메리카 지수 1% 하락, 지역 통화는 0.5% 약세 ↳ 미국 30 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 년 6 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 ↳ 칠레 2 분기 경제성장률 0%(시장 예상 하회), 콜롬비아는 개선 • Flavio Bolsonaro 캠프, 전 광물에너지 장관 Sachsida 경제정책팀 영입 ↳ Jair Bolsonaro 의 장남인 Flavio 는 10 월 대선 우파 진영의 주요 후보 ↳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Lula 현 대통령 선도 ↳ 2 차 투표 진출 시 Flavio 와의 접전 양상
남미 기타 뉴스 13 건	• Colombia Q2 GDP 전년동기대비(YoY) +3.5%로 가속, 정부지출과 서비스 부양 ↳ 분기 성장(QoQ) +1.3%로 1 분기(+0.6%) 대비 빠른 속도, 공공행정·국방·교육·보건 부문 - 전년동기대비(YoY) +10%로 정부지출의 견인력 강화 ↳ 중앙은행의 9 월 기준금리 인상(현재 12%) 가능성 높아짐에 따라 시장의 인상 베팅 강화 • Chile Q2 GDP 전년동기대비(YoY) -0.2%로 예상(+0.1%) 하회, 광업 부진 주도 ↳ 분기 성장(QoQ) 0.0% 보합으로 1 분기(-0.3%) 대비 개선했으나 시장 예상(+0.3%)에 미달 ↳ 광업 부문 -6.4% 수축, 구리 생산 저하가 경제 전체를 압박 ↳ 약한 성장과 낮아진 물가 → 중앙은행의 추가 인상 필요성 둔화 • Fitch, Colombia 2026 GDP 2.7% 전망·재정 위험 경고 ↳ 2026 년 재정적자 GDP 의 약 7% 수준으로 전망, 애널리스트 Richard Francis '재정이 Colombia 의 최대 약점'이라고 지적 ↳ GDP 의 3% 규모 재정조정 필요하나, 실행 시 경제적 비용 발생 가능성 • Argentina 7 월 1 차 재정수지 약 20 억 달러 흑자로 전환 ↳ 6 월 적자(-6,968.4 억 페소)에서 7 월 흑자(+2.96 조 페소)로 급반전, 정부 긴축정책 효과 반영 ↳ 환율: \$1 = 1,490 ARS • 라틴아메리카 자산 대부분 하락, 중동 긴장·유가 급등·미국채 수익률 상승 압박 ↳ 브렌트유 지난달 말 이후 최고가, 30 년물 미국채 수익률 2007 년 6 월 이후 최고치 기록 ↳ 미국-이란 간 단기 평화 가능성 희박 신호 → 투자자 신중 심화, 주식·환율 동반 약세
프론티어 뉴스 1 건	• 에스토니아 방위사업체 건물 방화, 총리 '러시아 개입 가능성' 언급 ↳ 지난 금요일 밤 무인 군사무기체계 제조사 밀렘 로보틱스(Milrem Robotics)의 건물이 표적이 되었으며, 우크라이나 등에 배치되는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 ↳ 용의자가 식별되었으며, 에스토니아 총리의 의도적 파괴 행위 및 러시아 개입 의혹 언급이 수사의 주요 축으로 제시

출처: Reuters,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,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